“사색 문화 복원에 불교 미래 있다”

한국명상지도자協, 6월 29일 창립 첫 포럼

300여 명상 관계자 모여 논의
시대별 수행법과 명상법 비교
“통불교 전통 활용, 새수행 창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6월 29일 열린 명상지도자포럼에서는 명상수행법 보급을 통한 지성불교로의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색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명상 수행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교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다시금 대중에게 알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6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명상과 깨달음’을 주제로 협회 첫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동사섭 수행법을 개발해 전파해 온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이 ‘명상과 깨달음 단상’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용타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의 최고 위기는 바로 사색의 부재이며, 명상수행 보급을 통해 기복불교에서 지성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용타 스님은 “청소년 시절 가장 존경한 인물 슈바이처 박사는 20세기 최고 위기는 사색의 부재라고 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 한국불교에 끌고 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처님은 사색을 하여 사성제, 십이연기, 팔정도의 수행체계를 정립하셨고, 삶의 기준을 전파했다. 한국불교가 일본이나 티벳불교를 넘어서기 여려운 현실은 바로 사유와 사색의 취약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러한 사색의 부재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문화의 보급을 들었다. 불교계에서 명상이 불교수행의 낮은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란 인식을 떨쳐버리고, 일반 대중의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방편으로 활용해 가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스님은 “명상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유한다는 것으로, 가톨릭에서도 묵상이라는 개념이 있다. 명상은 결국 팔정도 덕목과 상응한다. 정념과 정정은 명에, 정견과 정사유는 상에 상응되기에 불교수행과 다름이 아니다”고 정의하며 “부처님의 지성불교, 자등명불교를 문을 닫을지 부흥을 시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결국 따라주는 사람이 적으면 문을 닫아가게 되는 법”이라며 “외롭더라도 난행문으로서 지성불교를 살리는 길을 걸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300여 명의 불자대중이 모여 초기불교부터 티벳불교, 참선불교, 현대화된 명상에서의 깨달음 등을 비교 정의하고 수행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장은 ‘초기불교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통불교 전통과 비교적 개방적인 환경에서 남방불교와 티벳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다. 국수주의 관점을 넘어 한국은 근본불교가 복고돼 정착하기 가장 훌륭한 토양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아비담마의 현상의 정밀한 관찰, 발보리심에 바탕한 다양한 사마타수행과 대승관법, 화두선의 장점인 본성관이 특성을 살리며 보완될 때 완벽한 근본불법의 수행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포럼에서는 오상목 행복수업 교장의 ‘티베트불교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장 지운 스님의 ‘통합명상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교수의 ‘참선과 깨달음에 대하여’ 발표와 함께 김재성 자애통찰명상원장, 수월관음명상센터장 수월 스님,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B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명 돌파

종교방송 최대 구독 기록… 누적조회 3700만뷰

인문 · 순례 등 콘텐츠 다양
유튜브 전용 콘텐츠 제작도

BTN불교TV가 종교계 방송국들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을 최초로 돌파했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은 “공식 유튜브 채널인 ‘BTN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7월 1일자로 돌파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개신교와 가톨릭 등을 포함한 종교방송국 유튜브 채널 중 10만 명 구독자를 달성한 채널은 BTN이 유일하다. CBSJOY 구독자는 7만5000명, CTS는 7만 명 정도며 평화방송은 6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BTN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맞게 편집하고 TV에서 미처 보지 못한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업로드 된 동영상만 8000여 개, 총 누적 조회수는 3천 700만 뷰에 육박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1년 사이에만 8만 명의 구독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채널 구성도 다채롭다. 스님들의 법문과 강의를 비롯해 인문학 · 명상 · 사찰순례 · 불교문화들을 다양하게 영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불교종합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눈높이 법문으로 유명한 ‘광우스님의 소나무’는 350개에 달하는 개별 콘텐츠마다 평균 조회 수 5만회를 넘으며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BTN의 대표 콘텐츠 ‘나를 깨우는 108배’의 경우에는 지난 6월 100만 조회수를 넘겼다.

또한 BTN또한 지난 4월부터는 TV 프로그램의 재편집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튜브 전용 컨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있다. 생생하게 불교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낱낱이 알려주는 ‘자현스님의 쏘댕기기’, 도심근교의 사찰과 자연의 풍경과 소리를 그대로 담은 ASMR ‘쌩백색소음’, 20~30대를 겨냥하여 특색 있는 사찰들을 소개하는 ‘안녕, 템플 톡톡’ 등이 그것이다. 또한 7월부터는 광우 스님의 불교교리강좌가 유튜브 전용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한효진 BTN 뉴미디어부장은 “앞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 이외에 좀 더 편하게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제2의 채널을 개설할 계획이다. 차별화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이론물리학 관점으로 본 우주와 세계

불교진흥원, 7월 16일 화요강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7월 16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서 ‘떨림과 울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화요열린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에는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저서 〈떨림과 울림〉을 중심으로 강의에 나선다. 강좌서는 이론물리학 관점으로 본 우주와 세계, 삶을 구성하는 관계 등을 알아본다.

김상욱 교수는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서 ‘상대론적 혼돈 및 혼돈계의 양자 국소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포스텍, 카이스트, 독일 막스-플랑크 복잡계 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해 서울대 BK조교수, 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의 양자공부〉 〈영화는 좋은데 과학은 싫다고〉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陸海空 軍부루나존자 10명 탄생

군종교구, 6월 28일 2019신임군승 임관식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28일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학교장 이국재)에서 제52기 신임군승 임관식 및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 임관식에서는 육 · 해 · 공군 각급 부대 군법당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신임군승 10명이 탄생했다.

이들은 4월 24일 괴산 학생군사학교에 입대해 6주간 군사교육을 받았으며, 영동 종합행정학교에서 3주간 군종장교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이 임관군승에게 야전가사를 전달하고 있다.

임관 군승법사는 육군 7명, 해군 1명, 공군 2명 등 총 10명으로 육군군승 강재 김형우(수기사 26여단) 흥인 정민협(5사단 36연대) 정인 정지운(3사단 18연대) 보리 김태혁(12사단 52연대) 정여 최승호(27사단 78연대) 적담 정인호(28사단 82연대) 각담 문정현(7사단 3연대) 등이며, 해군군승 현기 심기탁(해군인천방위사령부) 공군군승 법일 김재현(공군 18전비), 미공 조성일(공군 2여단) 등이다.

특히 올해 임관 군승 중 5사단 36연대에 보직을 받은 흥인 정민협 군승은 교육성적 우수로 종합행정학교 학교장상을 수상했으며, 28사단 82연대에 보직받은 적담 정인호 군승은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종합행정학교 학교장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임관식 후 종합행정학교 남성사에서 봉행된 고불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108염주와 야전(전시)가사 등을 전하며 축하했다.

임관한 군승법사들은 고불식을 통해 “수행자인 군승의 본분을 잃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장병들과 함께하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전법의 의지를 밝혔다.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불교자비와 화쟁정신을 바탕으로 국군용사들이 있는 곳마다 함께 하고, 수행자로서 삶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보육교사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보육교사 연수 및 모범교사 표창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산하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7월 2일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서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연수 및 모범 보육교사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국 40여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조계종복지재단이 종사자 업무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했다.

연수에서는 보육현장에서 간과할 수 있는 행동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토크콘서트 ‘쉼’을 진행,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학무보 · 교사간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은 보육현장서 모범이 되는 교사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재단 산하 어린이집원장협의회를 통해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장기근속,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창의성 등을 평가, 대표이사상과 상임이사상 각 3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인 이혜리 교사(구로연꽃어린이집) 등 6명은 어린이집에서 적게는 13년, 많게는 17년간 근무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선생님 모두가 상의 주인공”이라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란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육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